

높은 정상 혈압이 심혈관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

JNC VI 와 WHO-ISH 에서 정상 혈압군에 대한 개념이 도입된 이후 수축기 혈압 130-139 mmHg 혹은 이완기 혈압 85-89 mmHg 인 높은 정상 혈압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절대 위험도 및 상대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상 혈압군을 가진 남녀에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연구 대상들은 Framingham Heart Study의 코호트 대상들 (original cohort) 중 examination 4(1956-1958, 454명), 12(1972-1974년, 326명), 18(1984-1986년, 1,825명), 그리고 자손들의 코호트 대상들 (offspring cohort) 중 examination 2(1978-1982년, 3,863명)들이었다. 문진 및 이학적 검사를 original cohort 대상들은 매 2년마다, offspring cohort 에서는 매 4년마다 시행하였다. 결과 변수는 12년 추적 관찰 후 심혈관계 질환(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 및 심근 경색, 뇌졸중, 심부전)의 발생이었다.

평균 추적 관찰기간은 11.1년(75,980 인년)이었으며, 397명이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을 보였다. 이 중 72명은 사망하였고, 190명은 심근경색, 85명은 뇌졸중, 50명은 심부전의 발생을 보였다.

최적 혈압(<120/80 mmHg), 정상 혈압(120-129/80-84 mmHg) 그리고 높은 정상 혈압(130-139/85-89 mmHg) 에서의 심혈관계 질환의 누적 발생률(연령을 보정)은 여자에서 각각 1.9(1.1-12.7), 2.8(1.9-3.8), 4.4(3.2-5.5) 이었으며, 남자에서는 각각 5.8(4.2-7.4), 7.6(6.0-9.1), 10.1(8.1-12.1) 이었다.

그리고 Sex specific Multivariate Cox-Proportional

Hazards regression model을 이용한 혈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에서는 최적 혈압군에 비하여 정상 혈압, 높은 정상 혈압, 그리고 고혈압의 위험도(95% 신뢰구간)는 여자에서 각각 1.1(0.6-2.0), 남자에서 1.8(1.0-3.1), 2.9(1.7-5.2), 그리고 P for trend across category는 <0.001 이었으며, 남자에서는 1.3(0.8-1.9), 1.6(1.1-2.3), 2.0(1.3-2.9), 그리고 P for trend across category 는 <0.001이었다.

따라서, 저자들은 높은 정상 혈압군에서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혈압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결론 내렸다.

Impact of high-normal blood pressure on the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N Engl J Med 2001;345:1291-7.

우울증 환자의 외래 치료 방침의 범국가적 변화

이 연구는 1987년부터 1997년까지 미국에서의 외래 진료에서 우울증 치료의 변화를 분석한 것인데, 최근 우울증 치료에 대한 약물의 많은 발전으로 인하여 치료 방법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분석한 것이었다.

미국 성인에서의 우울증의 1년 유병률은 약 5.0 - 10.3%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SSRI 제제가 소개되면서 우울증 치료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 연구에서는 1987년 NMES(National Medical Expenditure Survey) 와 1997년 MEPS(Medical Expenditure Panel Survey) 를 이용하여 외래에서 우울증 치료방법의 범 국가적인 변화를 분석하였다.

1987년 자료에서 총 34,459명, 1997년 자료에서 총 32,636명의 대상들을 훈련 받은 간호사들을 통하여

인터뷰하였다. 이 대상들에게 해당 년도에 진료를 받은 이유와 우울증으로 진료 받은 기록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상담 치료 및 약물 치료법에 대한 인터뷰도 시행하였다.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1987년 223명, 1997년 765명이었다. 1987년과 1997년 우울증 환자의 평균 병원 방문 횟수는 11.6회, 7.5회 ($p=0.04$) 였다. 정신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71.1%, 60.2% ($p=0.006$) 이었으며, 약물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44.6%, 79.4% ($p < 0.001$) 이었으며 이 중 항 우울제는 44.6%, 79.4% ($p < 0.001$) 이었고, 항 불안제는 15.7%, 13.1% ($p=0.42$) 이었다. 그리고 항 우울제 중 SSRI를 복용한 경험은 1987년 0 %에서 1997년 58.3% 였다. 정신 치료와 항 우울증 치료의 Adjusted Year effect(Odds Ratio)는 0.5(0.3-0.8) ($p=0.001$) 과 4.8(3.1-7.3) ($p < 0.001$)

이였다.

1987년과 1997년 사이에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은 많은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약물 치료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은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정신 치료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저자들은 이러한 변화는 SSRI 제제와 같은 내약성이 좋은 항 우울제의 개발, 외래 진료에서의 우울증의 진단법의 용이성 등으로 가능해 졌다고 주장한다.

National trends in the outpatient treatment of depression. JAMA 2002;287:203-9.

성균관대의대 강북삼성병원 김 철 환